

전남 바다 뒤덮은 적조...양식어가 피해 속출

여수 돌산읍 4개 양식어가 10만여 마리 폐사...3억여 원 피해
항토 살포 등 방제 총력 불구 6년만에 발생...어민들 걱정 태산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질 때까지 하루 엔 종일 바다에서 적조피만 바라보고 있지. 옆동네에서 적조로 고기가 다 죽었다는데, 황토 뿌리고 적조를 막대로 휘젓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인간이 자연을 이길수가 있나. 결국 운에 맡기는 수밖에...”

적조가 결국 전남 바다를 뒤덮기 시작했다. 6년 만에 발생한 적조 피해로 어민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와 각 시군이 300억원을 투입해 배를 띄워 황토를 살포하고 산소발생기 구입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쏟았지만 적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11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8-9일 여수 경호 부서도와 돌산 군내 등 4개 어가 양식장에서 적조로 인해 10만 6500마리가 폐사, 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품종별로 보면 참돔 7만마리, 돌돔 3만4000마리, 숭어 2000마리, 농어 500마리로, 특히 경호 부서도 피해 어가의 경우 출하를 얼마 남기지 않은 성어(成魚)들로 파악됐다.

적조는 코클로디니움이라고 불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해 해수면에 붉은색 띠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코클로디니움은 바다 내 산소부족 현상을 야기시키고 어류의 아가미에 달라붙어 세포를 손상시켜 어류가 죽게된다.

전남지역은 지난달 29일부터 여수와 고흥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어민들이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전년보다 (8월 2일)보다 4주가량 늦은 시점에 적조주의보가 발표됐지만 전남도는 적조 피해 예방에 사업비 317억원을 활용, 산소공급기와 정화선 등 방제 장비를 구축하고 미리 확보한 황토 6만 1000t을 활용해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집단 폐사를 막지 못했다.

전남에서 적조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발생한 적조피해는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생장하기 좋은 기후적인 요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9월 들어 30~32도 수준으로 8월달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적조생물 역시 폭염보다는 바다 수온이 22~27도일때 가장 활발하게 성장한다. 지난해 역대 가장 긴 71일간의 고수온이 이어졌지만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다.

또 최근 동부권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면서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유기물이 적조확대를 부추겼다. 게다가 적조피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데풍이 올해 단 한차례도 한만도 방항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도 6년 만의 적조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남 어민들은 올해 적조피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해양수산부에 긴급방류를 신청해 여수, 고흥 등 총 72개 어가에서 422만5000마리를 바다에 흘려보냈다. 한 방류 어가는 “적조로 집단 폐사하기보단 방류를 하는게 낫다고 판단을 했다”며 “하지만 방류를 했는데 적조피해를 입으면 추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다행히 긴급방류 어가에는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장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학원은 지난 10일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에 적조 예비특보를, 전남 득량만에는 적조 주의보를 발효했다. 적조 주의보는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당 1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되며, 개체수가 1000개 이상일 경우 경보로 격상된다. 전남바다(고흥)에는 최대 ㎖ 당 3348개체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조 농도가 짙어지면서 어민들도 노심초사 하고



전남 해역에 6년 만에 적조가 발생, 어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여수지역 양식 어민들이 11일 적조로 폐사한 참돔을 바라보고 있다.

〈여수시 제공〉

있다.

박민호 여수 화태어촌계장은 “어촌계 내 30개 어가가 이른 아침부터 바다에 나가 적조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황토를 뿌리고 뿌려도 적조가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호소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비만약 ‘마운자로’ 어디 가면 살 수 있나”

구입 문의 빗발...광주까지 원정
최저가 판매약국 찾는 어플 인기
비만치료제 무분별 처방 우려도

#.전북 남원에 20대 후반 A씨는 지난달 중순 비만 약 ‘마운자로’ 구입을 위해 광주까지 왔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최저가 판매 약국이 광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차를 몰고 왔다. 30만 원을 넘게 줘야하는 남원지역보다 광주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

미국 제약기업 일라이릴리가 출시한 비만 주사치료제 ‘마운자로’ (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광주·전남 지역 처방 병원을 찾거나 최저가 판매 약국을 찾는 어플도 인기를 끌고 있다.

병원과 약국에도 하루에만 수십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환자의 키, 체중을 바탕으로 한 체질량지수 등을 토대로 전문의 상담을 거쳐 병원 처방을 받으면 인근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통상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

에게 처방되는데,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BMI비만도 범위는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 ~ 22.9 사이는 정상, 23.0 ~ 24.9 사이는 과체중, 25.0 이상은 비만, 30 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위고비’보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데다, 가격도 위고비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처방동한 약국 의사는 “마운자로가 출시 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위고비보다 3~4배 이상, 하루에 10건 이상 판매하고 있다”며 “출시 첫 주만 해도 물량이 없어서 제2의 마스크 품절 사태를 방불케했었다”고 말했다.

광산구 한 의원에서는 남녀노소 다양하게 마운자로 처방 문의가 꾸준해 스스로 주사를 놓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비만치료제를 무분별하게 처방받는 데 따른 우려도 크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은 “관장되는 BMI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비만 치료제가 돼야 하는데 단순히 살을 빼는 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도입 두달 전남지역 24명 모집에 16명 지원 그쳐

의료 취약지의 필수 의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광주일보 9월 2일 6면〉가 시범 도입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전남 지역은 여전히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시 북구 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에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4명의 전문의를 모집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16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필수의사제 지원사업은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 13억 5200만원을 들여 전남과 강원·경남·제주 등 4개 시도 17개 병원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전문의 96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한국병원 6명, 목포시의료원 6명, 성가롤로병원 6명, 순천의료원 6명 등 총 4곳 24명을 모집했다.

전남은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 지난 8월 기준 전남 지역 지원자는 16명(목포한국병원 14명, 성가롤로병원 2명)이며 실제 채용 완료한 수는 11명(목포한국병원 9명, 성가롤로병원 2명)에 그쳤다. 그 외 목포시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은 지원자가 ‘0명’이다.

4개 시도에서 지난 8월 기준 채용 완료한 지역필수의사는 모두 3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96명)의 37.5%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미성년자 유괴 시도 잇따르자 경찰력 총동원 예방순찰 나서

경찰청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 시도가 잇따르자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예방순찰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전국 초등학교 6183곳 등·학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한다.

전국 지구대·파출소 소속 지역경찰 4만 8347명, 기동순찰대 2552명, 교통경찰 3152명, 학교전담경찰관(SPO) 1135명 등 총 5만 5186명이 동원된다.

필요한 경우 형사·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순찰과 함께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 어린이 주변을徘徊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극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217개소도 화상 순찰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